

현장시선



전 병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평소 청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청렴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 규정을 지키려는 직원의 마음가짐과 책임감, 그리고 기관장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업무를 들여다 볼수록 한 가지 고민이 생긴다. 아무리 직원이 주의를 기울여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렴을 개인의 주의와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한번 더 살펴주는 장치들 만들어야

디지털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공사의 디지털 전환 방향에 맞춰 '지능형 내부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찾아보자는 것이다.

우선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계약부터 시작했다. 원가계산서 검토나 계약대금 지급서류 확인처럼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업무에 AI 자동화 이중점검을 적용했다. 담당자가 한 번 검토한 내용을 AI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류나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AI가 담당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역할에 가깝다. 결재권자 역시 한 번 더 확인

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업무 부담은 줄이고, 원가 계산 오류나 부당집행 가능성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부통제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긴 뒤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청렴이 가야 할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기술만으로 청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청렴 관련 사례를 직원들이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활용한 오픈채널인 '흔디청렴톡'을 운영하고 있다.

누군가의 실수가 또 다른 사람의

반복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배우자는 취지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사람의 판단에 AI의 점검을 더하고, 직원들이 서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청렴의 안전망은 지금보다 촘촘해질 수 있다.

청렴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청렴을 지키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제에는 사람의 양심과 책임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술을 활용해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청렴접근성의 인식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이중점검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차 줄여감으로써 일상에서의 청렴을 실현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제주경찰 잇단 비위로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제주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도민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종사건 허위 보고를 비롯한 직무유기, 성추행, 음주운전 등 비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제주지역 한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한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자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애타게 찾고 있다. 실종자는 지난 5월13일 새벽 1시30분쯤 다 기술을 활용해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청렴접근성의 인식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이중점검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차 줄여감으로써 일상에서의 청렴을 실현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가족이 실종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면 재차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관은 실종자를 대면해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찰관은 또 지난달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다. 제주경찰 소속 직원들의 비위는 잇따라 터지고 있다. 만취상태의 음주운전, 음식점 여자 화장실 침입, 강제추행 등으로 잇단 입건됐다.

제주경찰은 몇몇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력이 시자였던 경찰관은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

인구 순유출 시대... 인구정책 새 틀 짜야

제주지역 인구 유출이 심상치 않다. 올해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로 전입하는 사람보다 제주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내놓은 '2분기 제주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입인구는 1만7714명, 전출인구는 1만7890명으로, 176명이 순유출됐다. 2023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순유출이다.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2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107명, 70세 이상 85명이 순유출됐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주된 이유는 직업·교육 등이

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중소도시들이 함께 겪는 아픔이다. 일부 시·군에선 인구 순유출이 가속화되며 소멸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대부분 시·군의 인구 순유출 또한 직업·교육에서 비롯됐다. 일부에선 주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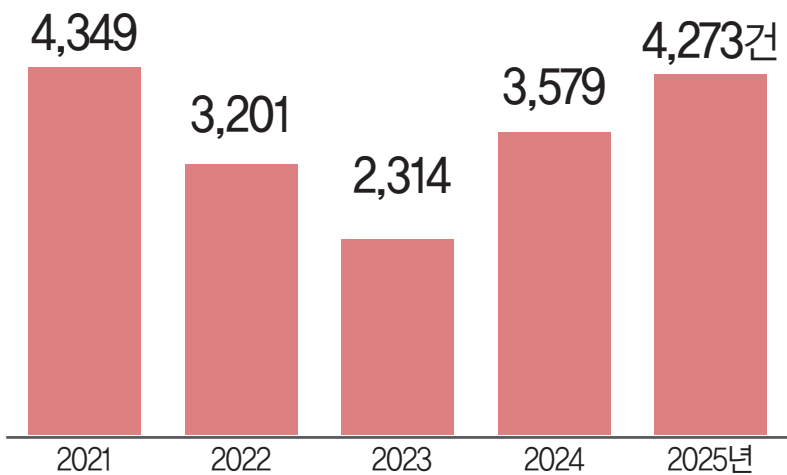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이 시급하다. 유출 방지 일련도의 정책으로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청정제주에 맞는 적정 인구 산정이 우선이다. 청년층이 제주에 머물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중장년층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유입이 없는 한 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 뉴스

디지털성범죄 추이

불법촬영물 제작·유통 등의 디지털성범죄 경찰 수사 건수

5년간 17,716건



연합뉴스

자료: 성평등가족부

|                                                                                                                               |  |                                                                                             |  |
|-------------------------------------------------------------------------------------------------------------------------------|--|---------------------------------------------------------------------------------------------|--|
|  <b>한라일보</b><br>제주의 대표 신문                  |  | 발행인·인쇄인·편집인 <b>김한옥</b> 편집국장 <b>고대로</b><br>☎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br>대표전화 (064)750-2114 |  |
| 인터넷 서비스 <a href="http://www.ihalla.com">http://www.ihalla.com</a><br>e-mail: <a href="mailto:hi@ihalla.com">hi@ihalla.com</a> |  |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br>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  |
|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  | 구독신청·배달 750-2315<br>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br>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                                                                                             |  |

열린마당

119 구급차,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강 봉 군  
제주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의식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상황,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우리는 가장 먼저 119를 떠올린다.

119구급대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구급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적 도움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구급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감기나 몸살, 며칠째 지속된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경우, 교통수단이 없어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 치통·감기,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열상·찰과상,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을 비응급환자로 정의한다.

구급차는 한정되어 있다.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더 멀리 있는 구급대가 출동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단 몇 분의 차이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의식·반응이 없는 경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마비나 언어장애, 심한 가슴 통증이나 대량 출혈, 중증 외상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증상이 경미하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119구급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응급의료 자원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송정훈(1973. 08. 06.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남성로 67, 에이동 801호 (용담일동, 덕진어울림아파트)

상기자는 2025년 9월 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7월 16일 제주지방법원 2026노단304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서경로21길 16, (삼도일동) 2026. 8. 21.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송상순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조 지 | 기수 | 비고 |
|------------------|-----|----|----|
| 서귀포시 대정읍 신암리 875 | 1기  |    |    |

2. 개장시유 : 토지청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서귀포수목공원 봉인당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청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연락처
  - 공고인 : 이종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연덕면 사계로 64-1(010-3609-498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안북지과 ☎ 064)760-6522
7.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명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 전 세명이 합쳐서 아래에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분묘 개장공고를 집행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6. 8. 21.

위 공고인 : 이승범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상속논의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특이**